

코스콤, 핀테크 생태계위한 '레그테크' 출시 준비

»»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금융클라우드 활용해 데이터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 준비

코스콤이 핀테크 기업들의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레그테크 솔루션을 준비중이다.

코스콤은 증권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출시에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핀테크 기업들의 자체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레그테크 솔루션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레그테크란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이다.

지난 4월 코스콤은 IBK투자증권에 레그테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레그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 왔다.

코스콤이 준비한 1단계 레그테크 생태계는 자본시장 등 금융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실시간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 축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코스콤은 핀테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도입 단계에서 기회를 보장 받아 제품을 출시한 핀테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코스콤은 하반기에 구축될 '코스콤 금융클라우드'에서 레그테크 서비스를 금융 특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축적한 금융클라우드 내 대량의 데이터를 시를 통해 패턴분석하고, 이를 통해 준법감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서비스들을 금융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O'핀테크 기업은 자금세탁방지과 금융규제 솔루션 등을 구축하기 위해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시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도 고도화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

코스콤은 올해 8월 금융클라우드 출범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